

머리글

강인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살레시오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 루카 17, 10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기 전에 수도원에서 소년원 사도직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소년원 여름 신앙학교를 마치고 동기 수사님들과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지’라며 기대하는 그 마음이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 수사님. 집으로 가다가 맛있는 것 먹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도 수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소년원에 가서 열심히 신앙학교를 하고, 그 보상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받으면 하느님 나라에 어떠한 상을 쌓아 놓을 수 있을까요. 수사님?” 살레시오 수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벌써 무엇인가를 당연하듯 바라면서 살아가는 안 된다는 수사님의 일침이셨습니다.

루카 17, 7-10에 ‘겸손하게 섬겨라’라는 부제목의 ‘종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종일 밭에서 일한 종이 집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든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고맙다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종도 온종일 일만 시키느냐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예화입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맡은 일에 기쁘게 성실하게 임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교정사목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 마음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딱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칭찬도 받고,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행,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숨은 공로를 눈여겨보시고 하늘나라에 다 마련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9월도 기쁘게 성실하게 교정사목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각 교정시설 세례식 및 방학식



각 교정시설에서 세례식과 방학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4명,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3명, 서울구치소 여사 1명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 남사 6명,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2명, 남사 5명,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1명, 고봉중고등학교 3명으로 총 25명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함께 자리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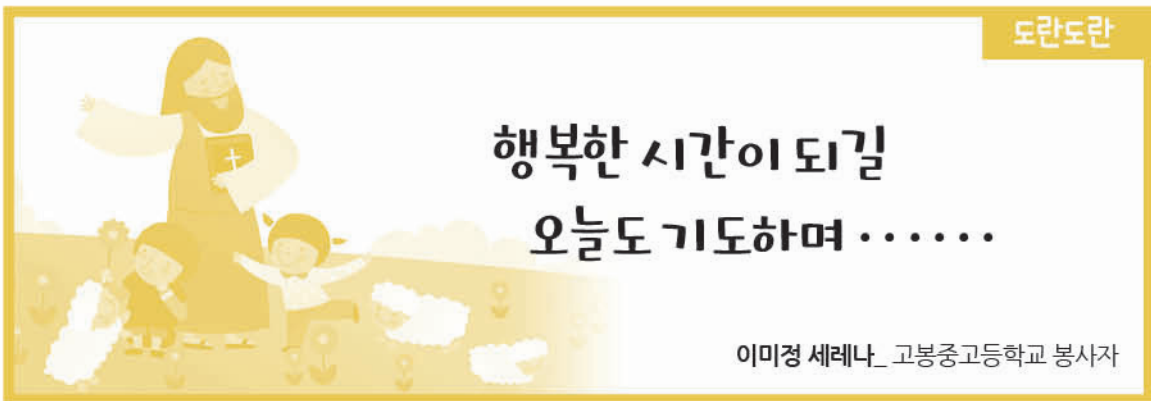


8월 5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상원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며 공동체에서 함께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싹터도 미움이 생기기도 한다. 그 미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다.”라며 “비록 분란과 미움이 있어서 지치고, 눈물 흘리고 엎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8월 축일을 맞이한 현대일 신부를 위해 꽃다발 전달식과 대표봉사자들의 축가로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리며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6일(화)~9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름 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하느님의 초대’, 둘째 날은 ‘하느님을 사랑하라’, 셋째 날은 ‘이웃을 사랑하라’, 마지막 날은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의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님은 강론을 통하여 “성인이 되겠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더불어 생각하여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고봉중고등학교)를 잠시 거쳐 간다는 것은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밑거름과 약이 될 수 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 변화시켜주실 것이다”라며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 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길 오늘도 기도하며

이미정 세레나_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고봉중고등학교와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봉중고등학교와 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던 시절 그곳을 지나며 ‘아! 이런 곳에도 학교가 있네?’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곳이 소년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종종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문득 ‘소년원에서 봉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접근해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생각에 마음에만 간직했었다.

몇 년 전 몸도 마음도 아주 아팠던 무렵 본당 자매가 고봉에서의 봉사를 제안해 왔다. 뜻밖의 제안에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봉’이란 단어가 낯설진 않았다. 그러나 막상 소년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려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몇 주를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도 생생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잊을 수가 없다. 넓지 않은 교실에선 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교실 가득했던 아이들에게선 두려움과 연민의 마음이 느껴져 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롭다. 아이들 개개인의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인생 선배로서 미루어 짐작건대 이곳에 오기까지 아이들이 겪어야만 했을 다양한 사연의 아픔이 느껴졌기에 흘렸던 눈물이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의 부채 의식 때문인지 첫날의 눈물 바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멈추질 않았다.

봉사를 다닌 지 이 년이 지난 지금은 가벼운 맘으로 그들 곁에 머물 수 있어 기쁘다. 아이들과 노래하고 웃고 떠들다 보면 두 시간의 봉사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요즘은 봉사 첫날, 두려움마저 느껴졌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십 대의 여느 아이들보다 더 여린 하느님의 귀한 자녀임을 보게 된다. 아이들과는 세대 차도 많이 나며 젊고 예쁜 누나는 아니지만 한결같은 맘으로 아이들 곁에 사랑으로 머물러주는 봉사자가 되고 싶다.

소년원에서의 봉사는 내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며,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안에서 연대하며 살아가야 할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소년원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그 아이들이 천주교 종교 시간을 통해 세상엔 자신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지지하는 이웃이 있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오늘도 기도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라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라반은 아브라함 아우의 손자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아내인 레베카의 오빠이며, 이사악과 레베카의 아들, 야곱에게는 장인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파탄 아람' 지역의 '하란'에 살았습니다. '나하라임'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창세 28,6;24,10). '파탄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고, '나하라임'은 두 강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근처에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평야가 있으니, 지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도시의 유적도 남아 있고 또한 상업과 종교 역시 발달한 곳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사악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이 형의 화를 피해서, 라반에게 갔나 봅니다.

라반이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와서 손님을 모시는 등의 가장 역할을 라반이 합니다. 우물가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뛰어가고, 집도 정리하고, 낙타의 짐을 부리고, 여물을 주며 동행자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먹을 것을 드리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주도하는 것도 라반이었습니다(창세 24,31-32). 그런데, 그렇게 부리나케 그 번거로운 일들을 라반이 하게 된 것은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 있는 팔찌를 보고”(창세 24, 30)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이며 그 모든 재산을 이사악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맨 먼저 하고, 레베카 혼인 허락을 받자 패물을 레베카와 레베카의 어머니와 라반에게 주었다는 서술은 라반의 탐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반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야곱이 에사오를 피해서 도망왔을 때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게다가 두 아내와 그 몸종에게서 열한명의 자녀, 또 “수많은 양과 염소,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창세 30, 43)를 거느린 부자가 됩니다. 라반의 입장에선 고향에서 문제 일으켜 도망친 야곱이 노숙하지 않으며, 배 굶지 않고, 객지 생활에서도 이렇게 큰 부를 챙기게 된 것은 내 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십 년을 저는 장인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십사 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육 년은 어른의 가족을 얻으려고 일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창세 31, 39-40)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을 일했는데, 혼례를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언니인 레아였다는 유명한 일화 말고도 20년 동안 일하면서 품값을 열 번이나 바꾸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요구하는 행위, 요새말로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반의 이 갑질에는 자신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싫은 그 탐욕에 남이 받는 그 축복을 시기합니다.

라반은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요”(창세 30,27)이라고 야곱에게 고백합니다. 라반 자신만이 아니라, 야곱이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성실함과 하느님께서 내리신 축복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반은 결국, 자신의 양과 염소가 야곱의 양과 염소가 섞이지 않을까 하는 탐욕으로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 거리로 떼어 놓습니다(창세 30,26). 그런데 이 때문에 야곱이 자기에서 떠났다는 소식 역시 사흘 후에 알게 됩니다. 자기만 더 가지려는 탐욕은 분명히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회의 많은 갑질 행태를 보고 듣습니다. 노동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생명을 잃는 노동자들 소식을 읽습니다. 못된 고용주 한두 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멘토링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기쁨과희망은행 2019년 상반기 창업교육(21기)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의 기초교육을 진행하여 9명이 신청하여 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초교육을 수료한 7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운영위원과 직원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6명이 7월 13일 창업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이 1차 합격하여 멘토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담 멘토는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으로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상권 분석,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5일 1차 합격자에 대한 최종심사가 있었으며 1명이 합격하였고, 최종 합격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등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으로 창업자와 수시로 소통해 안정적인 성공 창업을 높일 계획입니다.

라파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제 사건으로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이로 인해 홀로 남은 어머니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신부님께서 성사 때,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아버지와 홀로 남아 이 불효자를 기다리는 저의 하나뿐인 어머니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부님 덕분에 일상기도문과 1단 묵주로 매일 아버지의 평안한 안식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신부님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기도밖에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신 신부님의 말씀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2019. 7. 26

진OO 올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안양으로 이송 간 형제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30 ~ 14:0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0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3~8/12)

7월~8월에는 안강숙 아가다, 김현주 마리아, 전소영 도로테아, 이지영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알림

- 9월 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및 피정 / 가톨릭회관 3층
- 9월 2일(월)~4일(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경남 거제, 통영
- 9월 6일(금)~11월 29일(금) 2019 제21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 교정사목센터
- 9월 19일(목)~27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